

광주 문화·예술·학계 인사 105명이 내놓은 문화전당 콘텐츠

범아시아 시민 공간·문화산업 거점 만들자

문화도시조성 지원포럼 제시...법인 운영은 반대

광주지역 문화·예술계, 학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여해 구상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전시·공연, 기획 프로그램 등)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는 유진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역민들의 지혜를 결집한 콘텐츠안이 폭넓게 수용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사)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회장 정동채·이하 지원포럼)은 2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문화부와 아시아 문화개발원에서 마련한 기존 문화전

당 콘텐츠 계획을 보완,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다. 지원포럼의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 방안은 크게 문화전당을 지식 전문가들의 공간이 아닌 범아시아 시민공공체 모두에게 개방된 열린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정부의 문화전당 콘텐츠 계획안에서 제시된 문화, 학계 전문가들이 모인 '집합지성의 공간'과는 대조적인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전당을 구성하는 5개원(민주평화 교류원·아시아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 문화원)에는 광주시민,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문화를 즐

길 수 있는 콘텐츠가 제시됐다. 문화를 활성화하고 문화창의의 산업을 일으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광주 7대 문화권(문화전당권·시각미디어 문화권 등)과 문화전당의 5개원 사업을 긴밀하게 연계해 문화산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골자다.

문화전당 5개원 가운데 하나인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에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무국과 유네스코(UNESCO) 문화관련 기구를 유치, 아시아 문화교류·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화·전설, 민속문화, 풍속 등 아시아 문화자원을 수집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아시아 문화정보원을 범(凡)아

시아 교류소통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연구인력을 아시아 각국에서 뽑고 연구소장의 국가별 순환보직제를 실시하자는 안도 눈길을 끈다.

지원포럼은 '문화창조원'의 경우 첨단영상·게임·에듀테인먼트·공예·디자인, 음악 등 5대 문화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의 산업체가 입주하는 거점이 돼야 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대안이 실현되면 문화창조원은 기존 콘텐츠 계획안에서 규정된 융·복합콘텐츠 '창작지원기관'에서 '창작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장된다.

지원포럼은 유진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지원포럼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광주지역에서 제시한 콘텐츠를 반영하겠다"고 제안하자 아시아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이달말까지 콘텐츠 구축방안을 확정, 문화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중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이 참석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설명회에서 지원포럼 위원들은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는 정부 기관이 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반대했다.

(사)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은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모두 10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상시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3 F1 성공개최 공무원노조가 나섰다



전남도 노조원 300여명 서킷 체험 다짐대회

'티켓 강매' 등에 일부 반발해 온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현진) 노조원들이 20일 영암 F1 서킷을 질주했다. 카트 자동차에 올라타 서킷을 내달리며, F1 대회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했다. 무조건 반대만 하기 이전에 노조원과 도청 간부들이 F1을 함께 경험해보자는 취지였다.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영암 서킷에서 노조원과 배운 태 행정부지사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년 F1 성공 개최 다짐대회 및 실·국 카트대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F1 자동차 경주

를 체험했다. 속도를 겨루는 스포츠답게 12개 실·국이 대표 선수를 뽑아 단체 릴레이 경주를 했고, 승자에게는 F1 티켓을 상으로 나눠줬다.

또 여성 노조원들도 카트에 올라 스피드를 만끽했고, 노조원들은 저마다 소속 실·국의 선수를 응원하며 흥겨운 한 때를 보냈다.

김현진 위원장은 "전남도가 개최하는 국제 행사가기 때문에 노조원들이 F1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회 성공을 위해 노조가 협력할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광주일보 '5·18 언론상' 수상

2010년 이어 2회 연속

광주일보가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33주년 기획물' 보도로 '5·18 언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전남기자협회회는 20일 '5·18 언론상' 취재보도부문 수상자로 임동욱·김미은·채희종 기자 등 12명의 광주일보 취재팀을 선정했다. 취재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기획물을 집중 게재해 5월 정신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일보는 '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시키나'(김지을·이중행 기자) 연속 보도를 비롯, ▲33주년 5·18 '문화&공감'(이보람·박정렬) ▲33년전 그날엔...피돌아보는 5·18(이중행·박정렬) 시리즈를 집중 게재했다.

또 5월 광주의 핵심 이슈를 다룬 ▲국가기록원 정보 공개로 본

사진 자료 속 5·18(김지을·양세열 등) ▲도널드 5·18 평화(최권일·박진표 등) ▲시호 5개월 남은 전두환 추경금 ▲5·18 부실기술 역사교과서(임동욱) 등 4개의 심층 보도를 기획, 기사화했다.

이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심리치유 문제(채희종), 5월의 시 '아, 광주여 무등산이여' 탄생 비화(박정진), 계엄군 출신 사진작가가 여는 5·18 사진전(김미은), 5월 상처 치유를 기원하는 그림책(김경인) 등 5월의 의미를 전하고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인물들을 피쳐기사로 발굴, 게재했다.

'5·18 언론상'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정신 계승에 기여한 언론인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1회) 2010년(2회)에 이어 올해가 세번째이다. 광주일보는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수상했다.

시상식은 28일 광주·전남기자협회 사무실에서 열린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광주 수능 1등급 비율 순위 상승

전국 5위권서 3위권으로 평균점수는 제주 이어 2위 전남은 최하위권 머물러

광주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2013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성적이 9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크게 떨어졌던 수능 1등급 비율의 순위는 5위권에서 3위권으로 다소 올랐다. 〈관련기사 7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일 발표한 2013학년도 수능(2012년 11월8일 시행) 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수험생의 학력수준을 보여주는 표준점수 평균이 언어·수리·수리나·외국어 등 4개 영역 모두 제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광주지역 전체 학생의 평균 표준점수는 언어 103.3점, 수리가 103.2점, 수리나 103.1점, 외국어 102.7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3.7~4.1점 높았다.

특히, 영역별 1등급 비율은 지난해 5위권에서 3위권으로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영역 1등급은 4.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서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수리가(4.8%)도 서울·경기에 이어 3위였고, 수리나(4.6%)는 서울·제주에 이어 전북과 함께 공동 3위였다. 외국어(3.4%)는 서울·대구·전북에 이어 대전과 함께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언어 5위, 수리가 2위, 수리나 5위, 외국어 5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언어·수리나·외국어는 다소 올랐고, 수리나는 1계단 내려갔다.

광주는 수능 성적이 공개된 2005년 이후 7년 연속 수능 1등급 비율이 특별자치도인 제주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1~2위를 차지해 최상위권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5위권으로 크게 하락했다. 올해 다소 회복했지만 최

상위권 복귀에는 실패했다.

1등급과 2등급 비율을 합한 경우에는 언어 12.5%로 2위, 수리가 12.9%로 3위, 수리나 13.2%로 2위, 외국어 11.7%로 4위를 기록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위권을 이뤘다.

또 중상위권으로 분류된 1~4등급 비율은 언어(45.9%), 수리가(45.6%), 수리나(47.3%)는 제주에 이어 2위를, 외국어(45.7%)는 제주·대구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수험생의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 98.8점, 수리가 93.6점, 수리나 98.7점, 외국어 96.8점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수능 표준점수 상위 30개 시군구에서는 지난 2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장성군이 올해는 언어 2위, 수리가 1위, 수리나 2위, 외국어 2위로 내려앉았다.

신안군은 수리가의 표준점수 평균이 지난해보다 14.6점 올라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모든 영역에서 표준점수 평균이 향상된 상위 30개 시군구에 이름을 올렸다.

광주지역은 남구가 성적 향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6월 24일(화) ~ 28일(금)

입학문의 : 대학원 062)605-1115
학부 062)605-1114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2013 SUMMER 여름방학

광주일보와 함께하는 청소년 해외영어캠프

24시간
영어로 생활

LEVEL
조별수업

해외
문화체험

생활
안전관리
시스템

수학
선행학습
실시

맞춤식
프로그램

필리핀 영어캠프

- 대상 | 초·중학생
- 기간 | 2013년 7월16일~8월25일(6주)
2013년 7월29일~8월25일(4주)
- 비용 | 4주 233만원 / 6주 350만원(항공료 65만원이상 별도)
(15세미만 입학비용, 공영세 포함)
- 포함사항 : 수업료, 숙식비, 보험료, 비자연장비, 특별활동 및 관광비, 학습자료비포함

뉴질랜드 영어캠프

- 대상 | 초·중학생
- 기간 | 2013년 7월23일~8월19일(4주)
- 비용 | 4주 565만원 (항공료 포함)
- 포함사항 : 항공료, 현지보험료, 학교수업료, 홈스테이, TAX, 특별활동 및 관광비, 학습자료비 포함

광주일보 2013 영어캠프 상담문의 TEL. 062)224-8111 FAX. 062)226-8111